



# 시스템 충격과 도미노 효과

| Terminal Widge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REPORT: 2026년 7월 24일 글로벌 마감 브리핑 및 전술 대시보드   |
| MARKET STATUS: KOSPI/KOSDAQ 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 |
| KEY THEME: 중동발 오일쇼크와 빅테크 이탈이 촉발한 구조적 하락장 해부 |

[국내 지표] 상승 (Red) / 하락 (Blue)  
[글로벌 지표] 상승 (Green) / 하락 (Red)



# 인과관계 플로우차트

진앙지 (Macro Shock)

Trigger: 사우디 유조선 피격 및 중동 전쟁 재격화  
Metric: **브렌트유 \$100 돌파 / WTI \$91.74 (+\$2.62)**



전이 (Financial Contagion)

Trigger: 인플레이션 우려 및 매파적 FOMC 기조 부각  
Metric: **美 국채 10년물 4.699% (+5bp) 급등**



이탈 (Global Capital Flight)

Trigger: 위험 회피 심리 발동, 글로벌 테크주 레버리지 축소  
Metric: **나스닥 25,137.69 (-2.15%) 하락 및 S&P500 재배치**



타격 (Ground Zero)

Trigger: 외국인/기관 투매 및 반도체·자동차 대장주 붕괴  
Metric: **코스피 6,690.62 (-5.72%) / 코스닥 748.22 (-5.32%)**



## Risk-Off (안전자산/인플레이션 헷지)



## Currency & Alternative Flows (Mixed)



### Key Insight

유가 100달러(Brent) 돌파라는 거시적 충격이 채권 금리 상승을 강제하며, 글로벌 자본의 위험 회피(Risk-off) 트리거로 작용함.



## Global Index Ticker

## US Sector Rotation (1D vs 1W Momentu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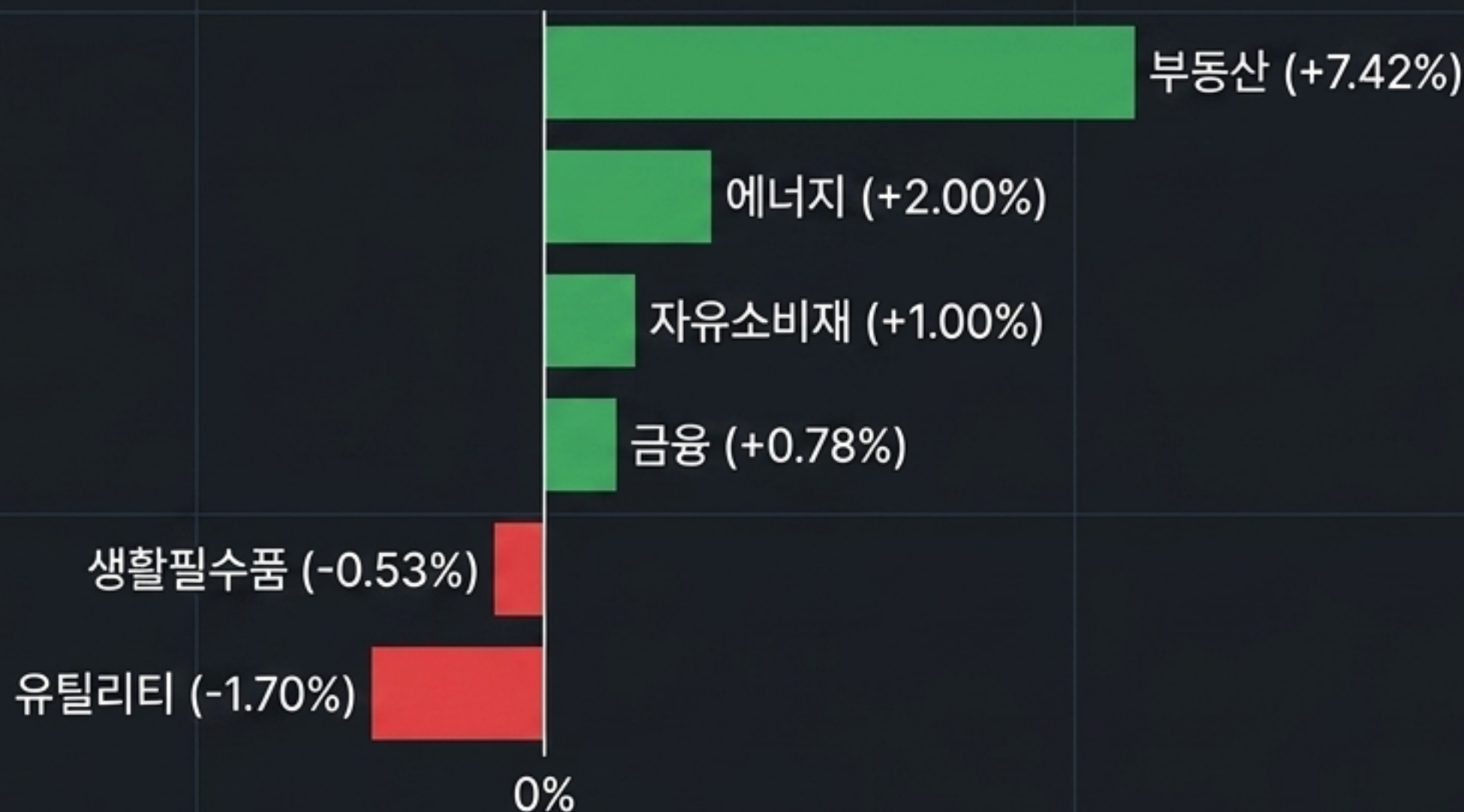
NASDAQ: 25,137.69 (-2.15%)

S&P 500: 7,498.96 (0.00%)

DOW JONES: 51,755.54 (0.00%)

Nikkei 225: -0.73%  
(반도체주 약세)

Shanghai: +0.45%



한 달 넘게 이어진 레버리지 ETF 매수세가 주춤하며, AI/기술주(나스닥)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S&P500 및 에너지/부동산 섹터로 급격히 재배치되는 '자본의 대이동' 발생.



## 코스피·코스닥 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

KOSPI: 6,690.62 (-406.27pt, -5.72%)

KOSDAQ: 748.22 (-42.06pt, -5.32%)

전일 종가 ■

외국인 순매도  
(-342만주)  
+  
기관 순매도 (-338만주)  
= 총 3.6조 원 투매

개인 순매수  
(+667만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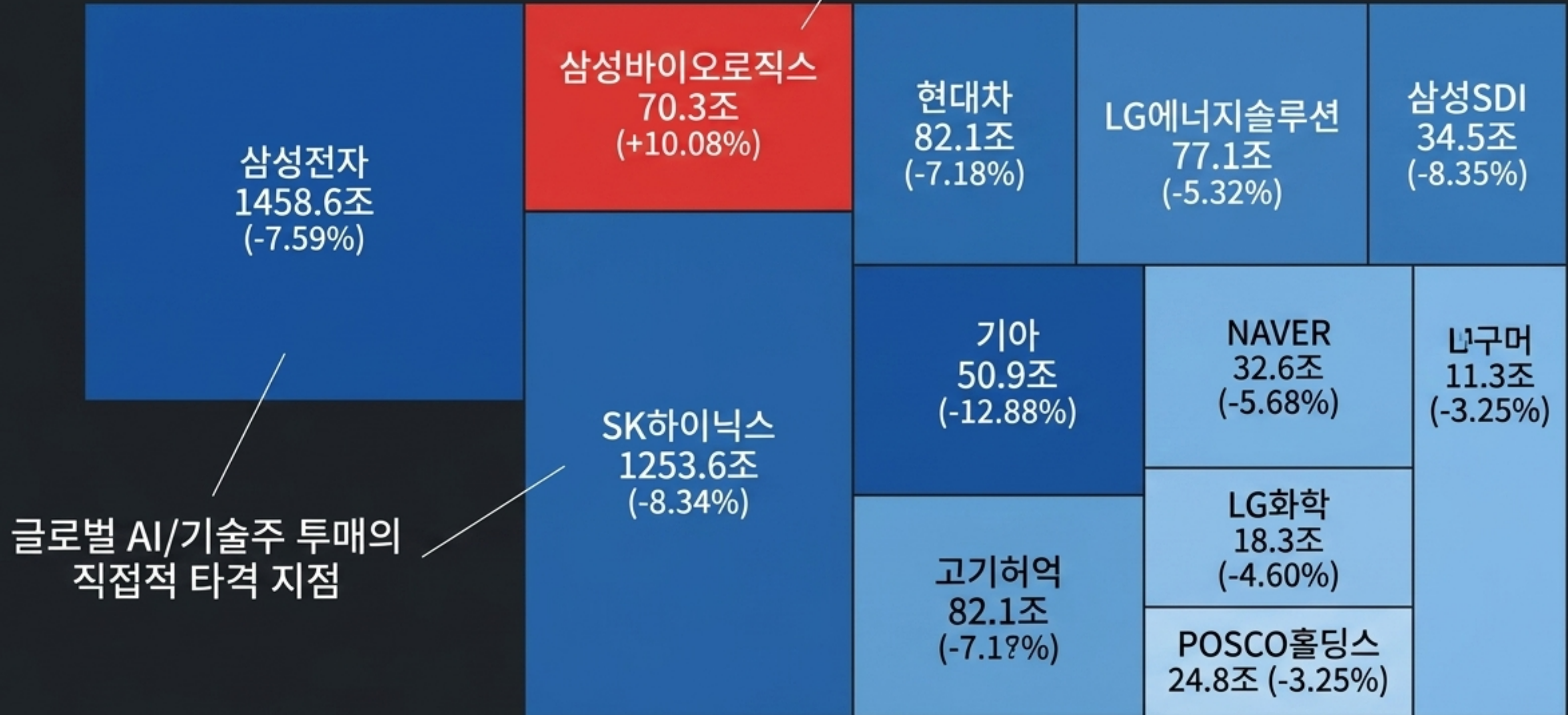
.....■ 코스피 6,690대 추락

개인 투자자의 667만 주 매수에도 불구하고,  
3.6조 원에 달하는 외인·기관의 거대한 매도 압력이 지지선을 완전히 붕괴시킴.



## 시총 트리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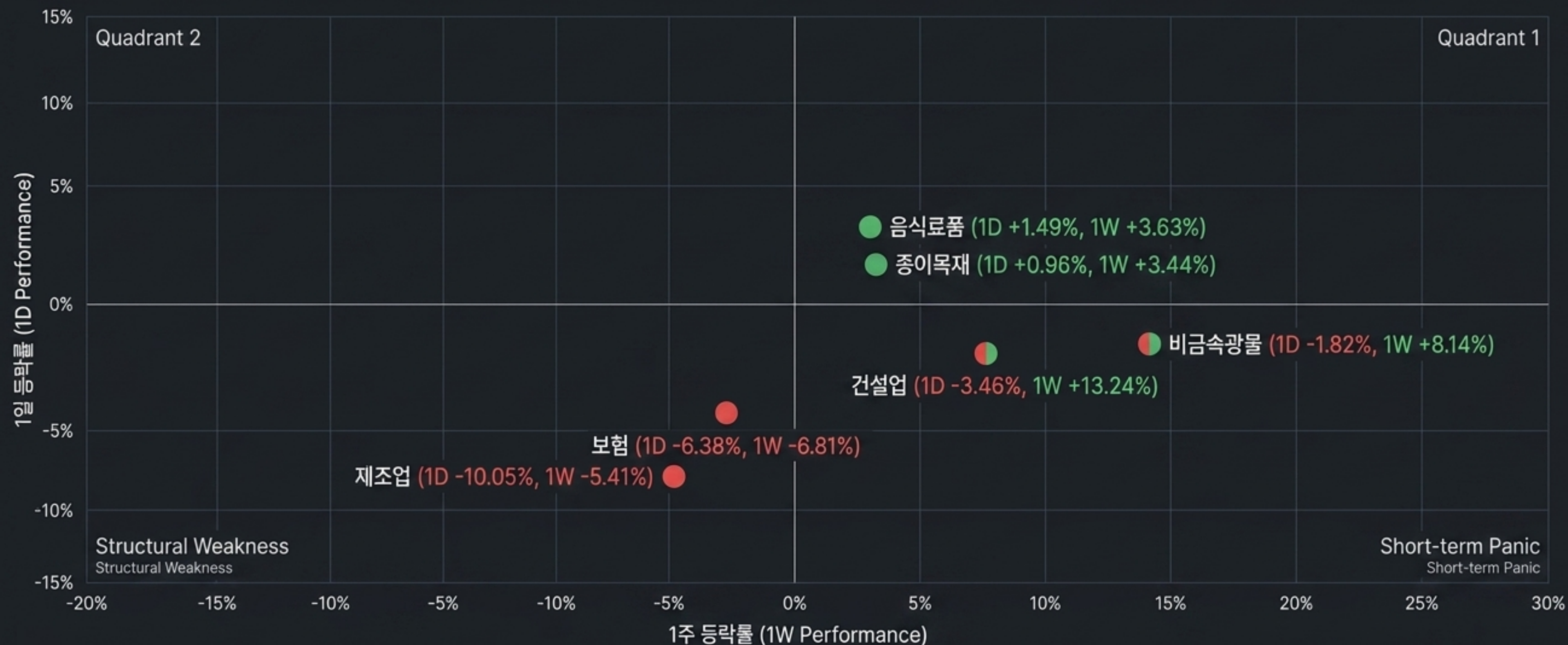
폭락장 속의 피난처:  
유일한 시총 상위 상승 종목  
(151만 8천원 돌파)



글로벌 AI/기술주 투매의  
직접적 타격 지점



# SECTOR HEATMAP & SCATTER PLOT



제조·기계·반도체 섹터가 지수 하락을 주도한 반면, 내수 방어 성격을 띤  
음식료/종이목재 섹터는 철저히 시장과 디커플링되며 자본의 도피처로 기능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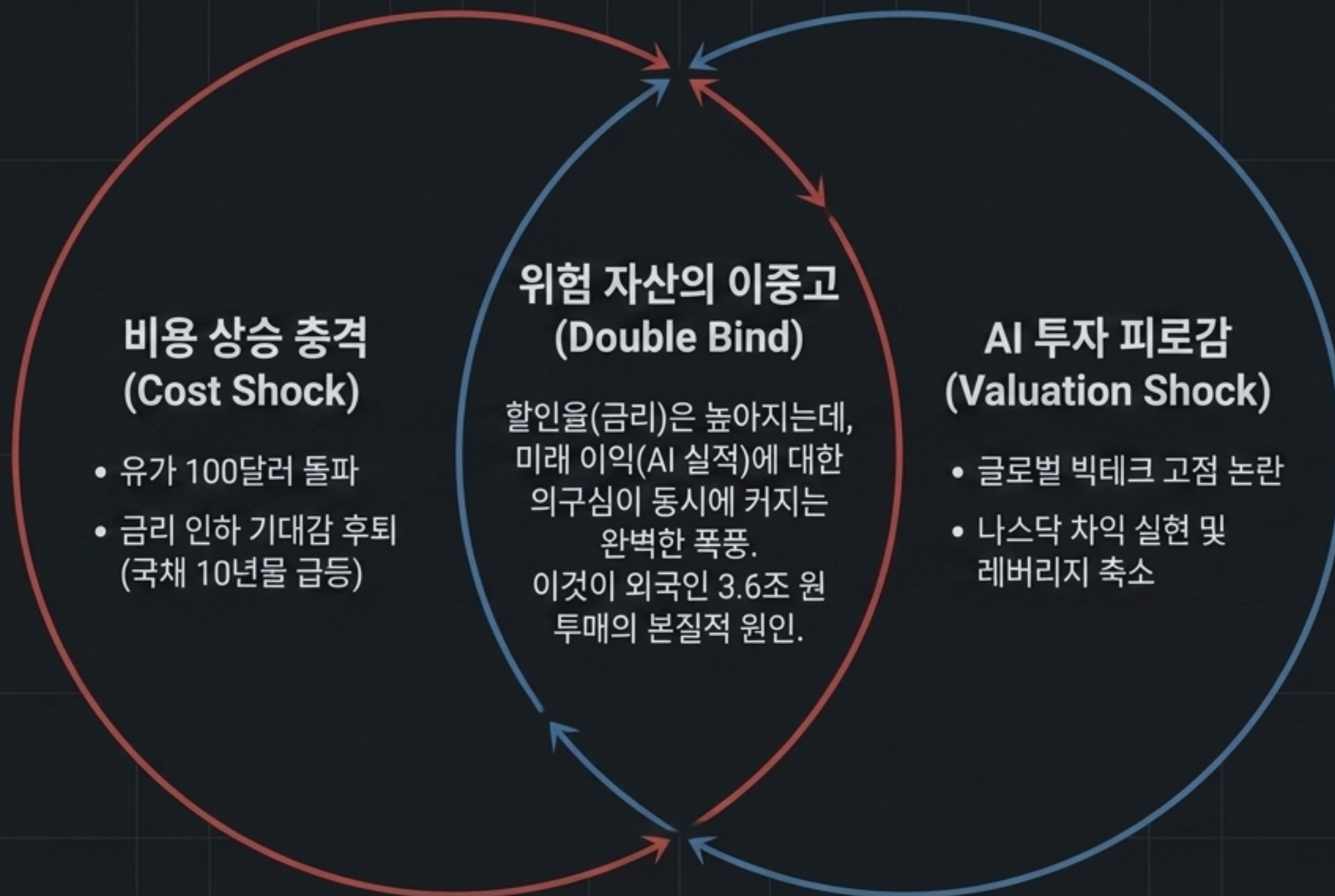
# The Defensive vs. Cyclical Matrix

## 폭락장 속 방어력 진단 매트릭스

|             | 경기민감/수출주<br>(제조, 기계, 반도체, 자동차)           | 방어/필수소비주<br>(음식료, 의약품_삼성바이오)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글로벌 매크로 민감도 | 매우 높음<br>(유가 급등 및 인플레이션 직격탄)             | 낮음<br>(내수 중심 및 고유가 방어력)          |
| 외국인 수급 타격도  | 치명적<br>(나스닥 기술주 동기화에 따른 패닉 셀링)           | 제한적<br>(오히려 헷지성 자금 유입)           |
| 대표 타격 지표    | 제조업 -10.05%,<br>기계 -3.99%,<br>기아 -12.88% | 음식료품 +1.49%,<br>삼성바이오로직스 +10.08%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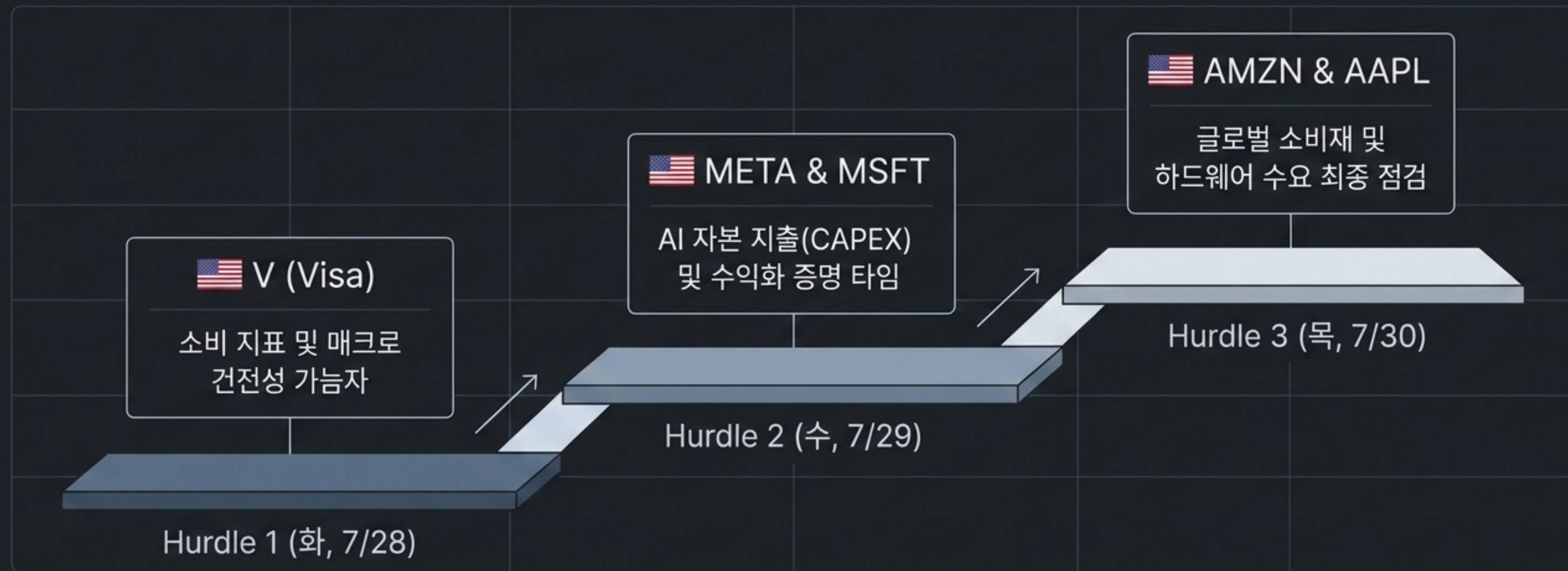
모든 하락이 동일하지 않다. 매크로 민감도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'방어력 진단'이 생존의 핵심.







# 실적 발표 징검다리 (7/24 ~ 7/31)



흔들리는 AI 랠리, 다음 주가 하반기 시장의 최대 분수령. 이 hurdles을 넘기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극대화될 것.



# TACTICAL DASHBOARD

## 수급 관점 (FLOW STRATEGY)

STATUS

개인 매수(667만주) 단독으로는  
지수 방어 불가.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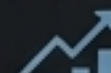
ACTION

외국인 매도세 진정 전까지 선부른  
'단기 저점 매수(Buy the dip)'는   
극도로 신중할 것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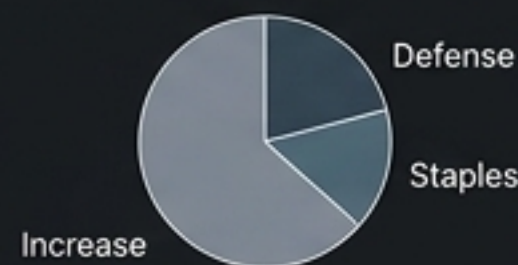
## 포트폴리오 관점 (PORTFOLIO ALLOCATION)

STATUS

기술주 중심의 레버리지 ETF에서  
S&P/다우로 자금 재배치 진행 중.  

ACTION

빅테크 실적 확인 전까지 철저한  
'방어형 고배당주' 및     
'필수소비재(음식료)' 위주의 비중 확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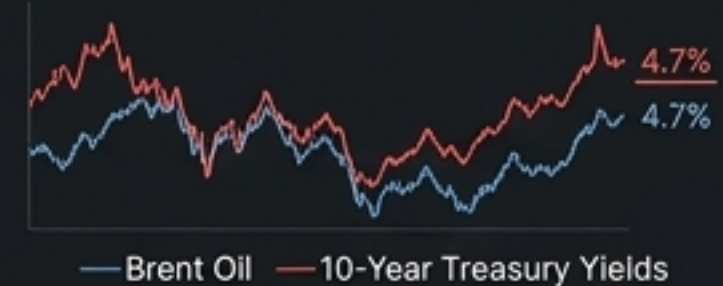
## 매크로 관점 (MACRO WATCH)

STATUS

지정학적 리스크 지속.   

ACTION

  4.7%    
브렌트유 추이 및 미국 국채 금리(4.7%  
저항선)를 최우선 헷지 지표로 모니터링.  
금/비트코인 등 대체자산 편입 유지.



구조적 변동성의 시대, 수익의 극대화보다  
맹점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.